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다시 보라!

본문: 사도행전 9장 10~19절

스테반의 순교를 정점으로 더욱 심해진 교회의 탄압 선봉에 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복음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9:6) 사울 생애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의 생애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행9:17). 그 순간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이 주님의 음성은 사울의 생애에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울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형수로 못 박힘 당한 죽은 예수는 실로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부활의 소식에 증오와 혐오를 느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잔멸시키는 일에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박해의 길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살아 계신 예수, 부활의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와 살아있는 인격적 음성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입에서는 언제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2. 사울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8일 만에 받은 할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며 흠이 없는 의를 가진 자, 교회를 핍박하며 유대주의적 열심 있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이, 해로 여겨졌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자기 실존을 본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며 사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세계에서 받을 썩지 않는 불사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인이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의의 면류관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실존을 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재인식을 의미합니다.

3. 자기 '인생의 사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광채 앞에 눈이 어두워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이미 그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무엇 하러 왔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왜 나타나시고, 왜 보이시고, 왜 그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역시 '다시 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이 눈을 떠서 날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된 나를 바로 보고,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단단히 부여 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질문

1.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잠시 나의 옛 사람을 돌아봅시다.
2. '다시 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나의 실존을, 나의 사명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까?

“ 신앙 여정의 출발점 ”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이자 세계의 위대한 작가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날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여겼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 처음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에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에 설득되어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는 나에게 속박으로만 다가왔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지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여 물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죽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 밖의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내면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며,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기쁨을 만들어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집, 직장, 배우자, 성취 등)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성장의 첫걸음 중

THINK

톨스토이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을장님들께서는 목장보고서를 종합하여 <마을보고서>를 작성 후, 목장보고서와 함께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1월 5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6일	2월 2일
마을특송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롱
대표기도	김은경 권사	정미현 권사	정영숙 권사	정주영 권사	최명선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1월 1일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본당청소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 김
중식봉사					

주요광고

1. 좋은이웃교회는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예배 및 영상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 담임목사님께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3. 장로, 전도사, 목사 시취교육이 1월 25일(화) 열린문교회에서 있습니다.
4.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교역자(협력) 및 당회원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지난 주 촬영을 못하신 분은 2부 예배 후에 **추가촬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월요목양새벽기도회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기도로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6. 설 연휴기간에도 예배는 변동 없습니다(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싱어.반주 / 문의: 서민기 목사).
8. 파워전도: 사랑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2시 30분/2층 집합).

금주: 안수집사회 / 다음 주: 집사회

교우소식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동복희 전도사/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